

# 서투리도 자유롭게...영암에 집 짓고 삽니다



난생처음 시골살이  
은은이가 지음  
티라미수 더북

“나는 시간을 벌어서 일기를 쓰고 싶다. 일기에 할 말이 있는 생각을 하고 싶다. 생각이 기 위한 새 일과를 보내고 싶다. 그런 건 시간을 벌어야 가능한 일이다. 시골은 돈이 아닌 시간을 벌기에 참 괜찮은 곳이다.”(‘난생처음 시골살이’ 중에서)

리틀 포레스트, 러스틱 라이프, 오도이촌 같은 말이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적한 공간, 문을 열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자연,

서울 떠나 전남에 귀촌한 부부 스스로 환경 만들어가는 여정  
시골살이 즐거움과 고충 답아

업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여기, 조금은 엉뚱한 이유로 시골행을 택한 부부가 있다. 그들이 시골로 향한 이유는 다름 아닌 ‘집’이었다. 남편은 내 손으로 직접 집을 지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아내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을 과감하게 실행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뽕속까지 도시인인 그

들은 그렇게 융감하게도(혹은 무모하게도) 하루아침에 치킨 배달도 안 되는 시골에 등지를 튼다.

서울을 떠나 영암에 손수 집을 짓고 귀촌한 부부가 지난 9년간의 시골살이 이야기를 엮어 ‘난생처음 시골살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변변한 자본도 없이, 이렇다 할 연구도 없이 ‘일단 난방비가 많이 안 드는 남쪽으로!’라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집 지을 땅을 찾는 모험을 시작한 부부가 생각지도 않았던 시골살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낙관주의를 둘러싼 낭만을 만끽하고, 생전 처음 겪는 불편함에 당황하기도 하고, 시골에 흔치 않은 젊은이인 탓에 썩먹거리고 오해를 사기도 한다. 어느 날은 봄빛처럼 마음이 한껏 부풀었다가 다음 날이면 겨울 추위 못지않은 꽃샘추위가 찾아온 것 같은 몰려

코스터 같은 하루하루. 그 안에서 부부는 차근차근 집만이 아니라 삶도 지어나간다.

빠르고 바쁘고 편리한 도시, ‘집은 역시 아파트’를 외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짝, 아니 크게 이탈한 그들에게 시골은 몰입과 발견과 모색의 시간을 선사한다.

‘시골에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스치듯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자연 속에서 나를 잊고 몰입하고, 낯선 환경과 느릿한 여유 속에서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며,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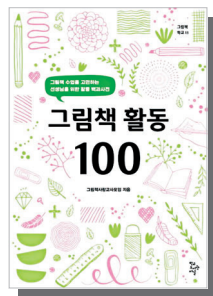
은은이는 저자 부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이기도 하며 이 채널은 한국전파진흥회에서 과학기술부장관상을, 전라남도 1인 크리에이터 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글과 그림은 아내가 쓰고 그렸다. /최진화 기자



어린이 생활백과



고전토론 길잡이



그림책 활동 100

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에게 적극 권장되고 있지만 호응이 좋지 못하다. 저자들은 월별 고전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다양한 책을 읽었다. 함께 읽고 토론하는 능동적인 고전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고전 읽는 재미에 서서히 빠져들었다. 책은 학생들의 공감도와 호응이 높았던 고전 소설 11개 작품을 수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소개하고 있다.

## ◇그림책 활동 100

그림책으로 수업하고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로 이뤄진 그림책사랑교사 모임이 ‘그림책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을 위한 활동 백과사전 ‘그림책 활동 100(학교도서관 저널)’을 펴냈다.

그림책사랑교사모임 교사들은 그림책과 연계한 100가지 활동을 담았다. 그림책 1권당 1가지 활동을 소개하는 구성이며, 각 활동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교사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세세하게 구분해 설명했다.

사고력과 비판적 태도,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독후활동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에서 나아가 ‘어떻게’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독서 전 활동, 글쓰기 활동, 그리기 활동, 그 외 활동, 온라인 활동, 총 다섯 가지 파트로 분류된 수업 구성안들은 독서와 연계된 양질의 활동을 준비하는 데 교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이나라 기자



대한민국 정원식물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K-정원식물’ 안내서 발간

### 전국 지자체·조경기업 배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해 개최된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포럼회’에 출판된 식물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식물 특성·구입처 등 정보가 담긴 안내서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조경기업 등에 배포됐다. 안내서는 홈페이지(www.koagi.or.kr)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아 정원을 조성할 때 참고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다양한 정원 소재가 시장에 보급돼 정원 문화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며 “전시·포럼회에 출판된 새로운 정원식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포럼회는 오는 5월 19일부터 열흘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세책 나왔어요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 3=책으로 만나는 아프리카 여행서. 시리즈물인 ‘넓은 세상 가슴에 안고 떠난 박원용의 세계여행 아프리카편’으로 아프리카 57개국의 다양한 사진과 여행기로 구성됐다. 이 책은 최복단 튀니지와 최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가장 동쪽 소말리아, 가장 서쪽 세네갈 그리고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까지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이 책 한 권에 빠짐없이 모두 담았다. 북쪽부터.

◇나는 다른 행성에 있다=2019년 ‘딩아돌라’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한경숙 시인의 첫 시집. 한경숙 시인은 작품 활동을 이어오면서 찰나의 순간에 발견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시공간을 형상화해 보여줬다. ‘삶 속에서 밀고 당기는 크고 작은 힘들을 성찰’하는 시인의 첫 시집에서는 ‘이 공간에 다른 시간이 숨어 있는’ 세계의 다층적인 차원을 우주적인 상상력으로 펼쳐낸 심도 있는 시편들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권는사람.

◇우리는 당신들이 볼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세계적인 페미니스트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실비아 페데리치의 2018년 작품. 대녀사상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개인적이고 제도적인 폭력이 급증하는 시대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자본주의 사회 관계가 확산되면서 증가해 왔다. ‘캘리버와 마녀’의 주요 주제들을 재조명한 작가는 여성 폭력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것이 여성과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한다. 갈무리.

◇스물원=뇌신경과 전문의이자 뇌신경의학자인 신동선은 뇌과학에 기반해 뇌가 즉각 반응하는 연습법이 따로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한 번에 하나씩, 작은 성공을 쌓아 원하는 능력을 얻게 해주는 뇌과학적 연습 설계법을 제안한다. 잘 고안된 연습 설계는 뇌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능력을 몸에 갖추게 만들어준다고 소개한다. 연습 방법을 제대로 세팅하고 실행한다면 연습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목표에 이르게 된다. 해나무.

## 신학기 학교 생활 어떻게 할까

3월 신학기가 시작됐다.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친구를 사귀고 배움을 익히며 적응하기 바쁘고 이제 갓 초등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최근 문해력 교육이 떠오르면서 교사들 또한 수업지도 방식을 두고 고민이 많다. 신학기를 맞아 이 모든 고민을 도울 길라잡이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교편’ (길벗어린이)은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지훈이의 일상을 따라가며, 어린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익혀야 할 바른 생활 태도를 꼼꼼히 알려준다. 책 한 권에 학교 갈 준비부터 수업 시간 활동하는 법, 선생님·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 등 실제 학교에 관한 정보들을 세심한 조연과 함께 친절하게 담았다.

## ◇고전토론 길잡이

수원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청소년에게 어떻게 고전을 읽힐지 막막한 교사들을 위해 고전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을 출간했다. 김길준·김운진·박혜미씨가 쓴 ‘수업에 바로 쓰는 고전토론 길잡이-생각의 힘을 키우는 고전 함께 읽기(학교도서관저널)’다.

고전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때문에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태도

## 적응 돕는 안내 책 잇따라 출간

## 생활태도·글쓰기 방법 등 안내

◇알아서 척척 어린이생활백과이제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어린이의 학교 생활의 적응력을 돕는 책이다.

고대영 작가가 글을 쓰고 차상미 작가가 그림을 그린 ‘알아서 척척 어린이생활백과-학

[www.jndn.com](http://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 알뜰한 정보!

#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       |               |      |               |
|-------|---------------|------|---------------|
| 광산지사  | 010-3601-1102 | 장흥지사 | 010-3613-6114 |
| 목포(갑) | 010-3272-2765 | 강진지사 | 010-6646-1241 |
| 목포(을) | 010-3635-6777 | 해남지사 | 010-8181-2627 |
| 여수지사  | 010-8648-1236 | 영암지사 | 010-4624-8409 |
| 순천지사  | 010-2547-7890 | 무안지사 | 010-3621-8989 |
| 나주(갑) | 010-7706-2410 | 함평지사 | 010-3600-0500 |
| 나주(을) | 010-3713-7458 | 영광지사 | 010-8666-2882 |
| 담양지사  | 010-8004-9885 | 장성지사 | 010-3666-1300 |
| 곡성지사  | 010-6764-6100 | 완도지사 | 010-5619-7020 |
| 구례지사  | 010-6636-3039 | 진도지사 | 010-3624-4777 |
| 고흥지사  | 010-9151-2828 | 신안지사 | 010-4627-1472 |
| 화순지사  | 010-3100-0386 | 보성지사 | 010-5259-6441 |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 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